

## 신건축

2005년 11월호

이번 호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후루야 노부아키 및 NASCA+치노시설계사무소협회가 공동으로 설계한 '치노시민관'이다.



표지는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그림책 미술관인 '창밖의 그곳 너머'이지만 건축계의 이슈가 될 만한 문제작은 치노시민관이다. 철도 역사와 시민문화회관을 접목시킨 점 그리고 시민참여형 설계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이 작품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 ■ 치노(茅野)시민관: 후루야 노부아키 및 NASCA+치노시설계사무소협회 공동 설계

치노(茅野)시민관은 일본 치노시(市)의 치노역에 인접하여 만들어진 시민 문화회관이다. 이 시민회관은 몇 가지 흥미롭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철도 역사와 인접하여 만들어진 시민회관이라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시민참여형 설계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로는 도서관과 공연장, 미술관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 내에서의 각 시설의 설계와 배치방식이다.

선로를 사이에 두고 철도역사를 마주하고 있는 시민관의 부지는 철도역이라는 일상적 공간과 미술관, 공연장 등의 비일상적 공간의 새로운 융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일상적 공간과 비일상적 공간의 만남과 융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시민관의 중정과 역전광장은 시민관의 옥외스페이스인 이벤트스페이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또한 철도역의 플랫폼과 열차 안에서는 플랫폼과 나란히 뻗어있는 유리커튼월을 통해 시민관의 로비와 스튜디오,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단순한 열차의 이용객들도 시민관 안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들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열차의 이용객과 실질적인 활동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도서관(그림 1, 2)이다. 열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브릿지와 직접연결되는 곳에 위치한 도서관은 열차 이용객들이 출발시간 1분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책을 열차를 기다리며 열람할 수 있다. 유리벽을 통해 열차가 도착하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열차가 도착하면 브릿지를 통해 곧바로 플랫폼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치노 시민관은 두 개의 공연장(대공연장, 소공연장), 미술관, 도서관이 함께 마련된 복합시설이다. 특히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들이 대공연장을 클래식 전용으로 하고, 소공연장을 가변형으로 하고 있어 이들 시설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운영되리 수 있도록 대공연장을 객석 가변형의 다목적홀로,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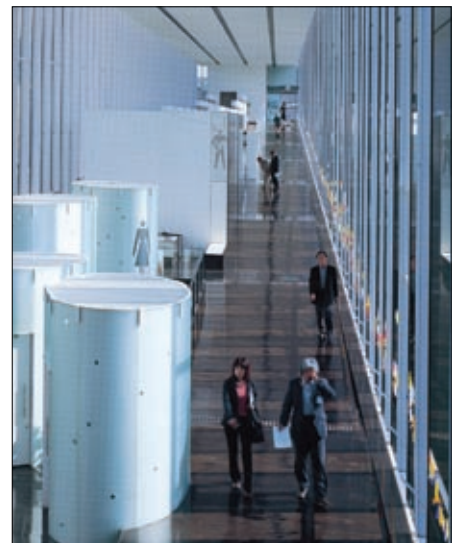


그림 1



공연장을 음악전용으로 하였다.

800석 규모의 멀티 홀(대공연장/그림 3)은 1층의 객석 배열을 바뀌며 연극, 강연회, 콘서트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객석 부분을 평탄한 마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비와 공연장 사이의 3중 벽을 열면 객석부분에서 로비, 중정으로 이어지는 넓은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그림 4). 부지의 형상에서 가장 넓은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플라타워의 북측에는 공연자들의 준비 및 연습실 등을 배치하여 거대한 매스가 주는 압박감을 감소시켰다.

300석의 콘서트 홀(소공연장)은 NC20의 단음성능을 확보하고, 관내의 다른 기능과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 철도의 선로에서 가장 떨어진 위치의 2층 부분에 계획하였다. 무대 배면의 벽을 열면 중정으로 너머의 슬로프등을 조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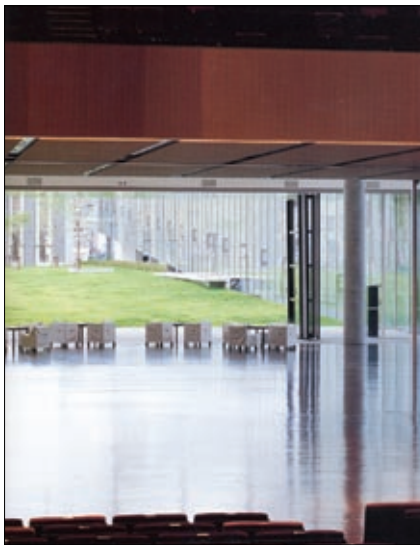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4

로비에서 바로 연결되는 치노시미술관은 '상설전시실'과 '시민갤러리'로 나누어져 천정고는 4.5m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부분에서는 10m에 달한다. 옥외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동측광장에 면해서는 유리커튼월로 개방감을 부여했으며, 유리벽은 실제로 개폐도 가능하다. 상설전시실과 시민갤러리는 경계벽을 회전시켜 두 공간을 일체화 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콘서트 홀의 관객동선 그리고 연주자의 연습실로부터 무대로 향하는 동선은 이 미술관 스페이스를 관통하고 있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 간의 시각적 교류가 유발되도록 하였다.

### 신건축

2005년 12월호

이번 호에는 우리나라 제주도에 건립된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몇 해 전 제주도 PINX골프클럽의 부대



시설인 '포도호텔'을 설계했던 이타미 준의 박물관 3제가 그것이다. 미술관이라는 이라 하지만 전시된 작품보다는 각자 주제를 가지고 마련된 미술관의 작은 공간이 전시의 대상 자체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밖에 이번 호에서는 신건축지를 통해 공모된 (학생)설계현상공모의 수상작 소개로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 ■ 제주도의 3개의 미술관, '바람(風)', '돌(石)', '물(水)': 이타미 준 설계

이타미 준에게 있어서 이번 제주도 프로젝트는 'PINX골프클럽'과 그 게스트 하우스인 '포도호텔'에 이은 작품이며,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비오토피아(연속형 빌라와 콘도미니엄을 포함하고 있음)'에 앞서 완공된 작품이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각각 '바람(그림 5)', '돌(그림 6, 7)', '물(그림 8)'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으며, 서로 이질적인 공간표현을 가지고 있다. 미술관으로서 감상될 여질 작품이 몇 점 정도는 걸리게 마련이지만 여기서의 의도적으로 작자의 이름이나 작품의 이름은 명기되지 않는다. 이 지역의 고유의 문화에 의해 무명성(無名性)을 중시한 결과이다.

미술관의 개념은 명상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삼았다. 건물의 부지는 삼방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절경을 가진 곳으로 자연의 보존과 생태계의 복원에 의해 삼림과 수변, 산책로로 둘러싸인 휴양마을을 지향하고 있는 곳이다. 이타미 준은 이곳에서 풍토를 맛갈스럽게 끌어들이어 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탄생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돌'의 공간에는 한가지 사고(思考)와 시적인 환상이 있었다. 돌의 작품을 확고히 만들어진 상자 속에서, 그것도 불빛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열려진 구멍을 인공의 꽃으로 삼고, 그 구멍으로부터 떨어져 시시각각 이동하는 빛이 주역이 되도록 연출하고자 하는 환상.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연상시키는 공간인 것이다.

'물'의 공간은 그 지역의 토착적 소재를 사용하고, 사각형의 입방체에 타원형을 넣어 하늘의 움직임을 수면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간과해 왔던 자연, 소년시대, 개천 바닥의 모래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도록 하였으며,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도 표현하였다. 물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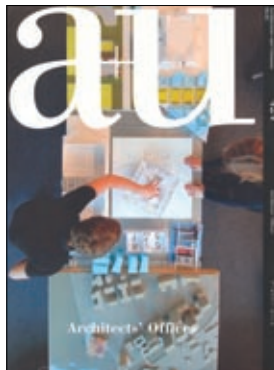
설치된 석재의 오브제는 이타미 준 자신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그는 이것이 무심히 앉을 수 있는 벤치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바람'의 공간도 간과해 왔던 자연과 기억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공간이다. 작은 가옥의 개념으로 설계된 목재의 상자는 입면의 한쪽이 활처럼 휘어져 있다. 그리고 입면에 붙여진 목판은 서로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어 바람이 불 때 마다 소리를 내는 것이다. 바람이 센 날은 목판이 현처럼 울리며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소리를 들려주곤 한다. 그곳에 설치된 석조 오브제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앉아서 감상하기 위한 의자인 것이다.

## atu

1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건축사들의 오피스'이다. 건축계를 리드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사무실 모습을 소개



하는 것으로, 2006년의 첫 번째 특집에서는 좀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유명 건축사들의 사무실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한번쯤 지녔을 만한 궁금증이었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호기심을 43개의 사무실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해소해 주고 있다.

### ■ 특집: 건축사들의 오피스

'건축계를 리드하고 있는 건축사들은 어떠한 공간에서 설계의 발상을 일으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나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 본

적이 있지 않을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던, 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축인 혹은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이건 간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건축사들의 사무실의 모습은 어떠한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설계스타일에는 개성이 있다 건축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도면을 만드는 것이 설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은 건축사에 있어서 천차만별이며, 실로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건축사들의 건축사사무소들도 설계스타일 만큼 다양할까? 아니면 동종 업종이 지니는 보편성과 공통점이 존재할까? 건축사가 작업하는 아키텍츠 오피스야말로 건축사가 지향하고 있는 원초적 공간이나 설계철학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려고 마련된 것이 이번 atu의 특집이다. 이번 특집에는 아시아권을 제외한(중국의 아틀



그림 9



그림 10

리가 한 군데 소개되긴 하였다.) 주로 서구권 지역의 43개 사무실의 모습을 비주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10여명 이하의 작은 아틀리에부터 수십 명을 넘는 규모의 사무실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무실이 소개되고 있지만 SOM이나 KPF 등 대형 사무실은 소개되고 있지 않다. 43개의 사무실들을 살펴보면 다니엘 리베스킨트, 장 누벨(그림 10), 퓨처시스템, 리처드 마이어, 프랭크 게리(그림 9), 렌조 피아노(그림 11, 12), 등 유명한 중견 건축사들과 FOA, UN studio, NL 아키텍츠 등 비교적 널리 알려진 신진 건축사들의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은 규모에 관계없이 아틀리에나 스튜디오적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두에 던져진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소개된 43개 사무실의 모습으로 판단되는 답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각 사무소는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 있지만 결코 건축사가 지향하는 원초적 공간이나 건축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건축사들만의 감각으로 개성있고 세련된 작업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건축사들의 사무소들은 모두들 정말로 '경제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무소는 렌조 피아노의 이탈리아 제노아 사무소이다. 도회적인 그의 프랑스 파리 사무소와는 달리 제노아에 마련된 사무소는 멋진 해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형으로 마련되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리조트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는 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하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그림 11



그림 12

